

한국 선문화학회 발족

10월 4일 창립총회... 첫 학술대회도

선(禪)문화와 생활의 접목을 통해 시대사상을 정립하고 현대인류가 당면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한국선문화학회(가칭)'가 창립된다. 142명이 발기위원으로 참여한 한국선문화학회는 10월 4일 불교방송 3층 법당에서 창립총회 및 제1차 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국선문화학회는 월례· 정기 학술발표회, 하· 동계 워크숍, 해외 학술단체와의 교류 등 선학과 선 문화 발전을 위한 활동을 통해 선학 이론 정리 및 재조명, 선을 통한 현대적 제 문제의 극복방안 제시, 현대인에게 적합한 새로운 선문화의 연구와 발표 등의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이날 개최될 제1차 학술발표회에서는 '한국 선학연구의 현황과 과제' (이덕진 장원대 교수), '한국 수행문화 현황과 전망' (문운식 동국대 강사)이 발표돼, 선과 수행문화에 대한 현황 연구를 시작으로 학회 활동의 첫발을 내딛는다.

11월 1일 2차 학술대회는 '선과 정신치료', 12월 6일 있을 3차 학술대회는 '선과 예술'을 주제로 해, 생활 전반에 걸친 문제들에 대한 선적인 접근을 시도 한다.

한국선문화학회는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을 상임고문으

로, 종호스님(동국대 교수), 정기문(강원대), 양형진(고려대), 김방룡(원광대), 박영복(충주대), 박영재(서강대), 이덕진(장원전문대), 이종철(정신문화연구원), 임병권(대전대), 차차서(현대불교신문 상임논설위원) 등 이들이 주축을 이뤄 창립 준비를 해왔다.

한국선문화학회의 특징은 참가자들의 전공이 선학에 국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철학, 사학, 중문학, 국문학, 신문방송학, 물리학, 의학 등 전공이 다양하다. 이에 대해 이덕진 교수는 "전공은 다르지만 선에 대한 관심, 선 연구에 대한 의욕을 갖고 있는 학자들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이며 선학의 영역 확대에도 이어질 수 있다"며 "한국선문화

학회는 학문적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학회 자체의 장점이 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노력 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 한국선문화학회는 '선'을 대표할 수 있는 세계적인 학회로 나가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종호 스님은 "선학을 기본으로 선과 생활에 대한 연구를 통해 선 문화를 재정립하고 학제 간 연구를 활발히 해 각계각층의 모든 이에게 선적인 삶의 형태와 정신문화의 비전을 제시하겠다"며 "향후에는 국제학술회도 개최해 국내외의 선학 교류도 활성화 하겠다"고 밝혔다. 오유진 기자 e_exist@buddhapia.com



◇봉정사 극락전 보수후 측배면 전경.

봉정사 극락전 보수불사 회향

2년여 공사, 문제된 기둥 국산 육송으로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건물인 안동 봉정사 극락전(국보 제15호)이 최근 해체보수 불사를 완료함에 따라 다시 법당에 목탁소리가 울리고 불자들의 참배가 이어질 수 있게 됐다.

봉정사 극락전은 건물기 기둥과 금이 가는 등 안전성에 문제가 생겨 지난 2001년 10월부터 보수에 들어가 2년여의 공사기간을 거쳐 지난 9월 9일 회향했다. 극락전은 또, 원형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문화재전문위원으로 구성된 기술위원단의 자문을 구하는 등 대 공경마다 완벽을 기했다.

특히 봉정사 극락전은 지난 72년 보수 때 기둥에 외국산 낙엽송이 사용된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었으나 이번에 문제가 된 기둥을 국내산 육송으로 전면 교체했다.

박원규 기자 bak09@buddhapia.com

철학·사학·물리학·의학 등 참여영역 광범

선과 생활접목·학제간 연구 활발히 추진

흔히 역사가들은 역사연구의 종착역은 '시대구분'에 있다고 말한다. 시대구분이 종착역이라면 시대와 시대를 이어주는 역사의 전환기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

22일 한국불교미술사학회(회장 문명대)가 주최한 제8회 학술대회 '고려 후기 전환기의 미술'은 고려의 귀족문화와 조선의 서민문화를 잇는 전환기 미술의 의미를 살펴보는 자리였다. 당시의 미술을 도자, 금속공예, 석탑, 건축, 조각, 회화, 불화 등으로 구분해 삼국~통일신라, 통일신라~고려로의 전환기에 비해 주목받지 못했던 고려~조선으로의

고려 후기 범종에 중국양식 혼합 조선초 새로운 형태로 자리매김

최응천 춘천박물관장, 전환기 미술 조명

전환기 미술을 집중 조명했다.

이날 발표 가운데 최응천(국립춘천박물관) 관장은 '고려 후기 금속공예'를 통해 "범종, 사리구, 금강저, 금강령 등이 원의 지배, 장인사회의 파멸, 전통의 단절이라는 불안정한

시기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외래적 자극에 힘입어 분야별로 나름대로의 중흥기를 맞았다"고 밝혔다. 최 관장은 "특히 범종은 원나라 장인에 의해 제작된 연복사종을 기점으로 우리나라 범종 양식은 큰 변

화를 맞는다"며 "이는 이후 제작되는 조선 초기 종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고려 후기의 종은 중국종의 영향에서 한국 전통양식이 혼합되어 새로운 조선시대 종으로 정착을 이루어 나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한국 전통종 양식이 조선초기까지 계승된 점은 조선 중기 이후 중국종과의 혼합을 이룬 혼합형종과 전통형종을 고수한 두 가지 범종양식으로 정착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고려 후기 전환기 범종의 역사적 의미를 강조했다.

오유진 기자



◇한국 전통종 양식을 보여주는 조선초 제작된 장흥사범종.

원용사상의 신·비·시·지

세계평화 구현에 큰 도움

김영덕 위덕대 교수 논문발표

김 교수는 논문에서 "종생들의 마음 가운데 담긴 지에 의해 전쟁은 발발하는 것이다"며 "더욱 구하고자 하는 탐심과 전쟁의 과보를 알지 못하는 치심이 어우러져 일으키는 거대한 고의 향연이 전쟁이다"라고 불교적 관점에서 전쟁을 정의한다. 김 교수는 <범법경>과 <우바색계경>을 예로 들어 "심종의 기본인상은 전쟁을 피하고, 참여하지 말 것이며 부득이하게 전쟁을 수호하는 전쟁만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한다.

김 교수는 "태고의 원용사상은 이라크 전쟁이나 긴장 속의 남북 상황을 구체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해 줄 수는 없지만, '미움으로 돌아가라'는 지극히 근본적인 논의를 통해 세계평화에 이르는 길을 제시해주고 있다"며 태고사상의 가치를 평가했다.

오유진 기자

*기사 넘쳐 정병모 교수가 쓰는 '불교미술의 꽃'은 쉽다.

새해

부처님의 세상, 불국토 달력은 가이기획에서 만듭니다.

- 가이기획 두손모음 -

2010호 (대·소)

202호 (대·소)

203호 (대·소)

205호 (대·소)

206호 (대·소)

209호 (대·소)

211호 (대·소)

212호 (대·소)

217호 (대·소)

219호 (대·소)

가이기획 카렌다 주문은 아래 불교용품점으로...

<p>서울지역 전의번호</p> <p>견지불교사 02-739-3032 관음순교사 02-720-1147 구덕만불사 02-354-7954 규정불교사 02-495-8184 김성보 02-722-4435 대성불교사 02-965-9118 대조불교사 02-363-0856 동일불교사 02-722-9195 불교서적사 02-732-8086 불세보 02-732-2829 상통사 02-394-9990 상계만불교 02-936-00639 상계일원만불교 02-937-7687 상계중앙만불교 02-934-1170 성통사 02-732-3543 승광불교사 02-491-5336</p>	<p>신광불교사 02-734-6331 선대불교사 02-442-2862 연화사 02-733-7699 우익산로공공관 02-336-2165 정오불교사 02-725-0045 경오불교사 02-383-4399 종학불교사 02-856-7500 중화인물 02-433-5657 진상불교 02-382-8216 진화공공관 02-483-9369 태극인물 02-2208-5059 태성불교사 02-732-7375 태조불교사 02-375-8881 화진불교 02-382-3408 부산지역 전의번호 국동만불교 032-765-0413 대선불교사 051-807-6842 대명불교사 051-205-1785 대방암 051-632-1470</p>	<p>부산백광기획 051-868-8518 부산영도불교 051-412-3423 태평불교 051-515-5834 한양불교 051-412-8147 해동불교사 051-337-6366 대구지역 전의번호 보현 053-252-7005 삼성불교사 053-427-8551 작전사 053-255-8875 칠성불교사 053-427-7399 해연불교사 053-425-0108 해동 053-623-1430 인천지역 전의번호 강화불교사 032-933-0647 국동만불교 032-765-0413 대선불교사 051-807-6842 대명불교사 051-205-1785 대방암 051-632-1470</p>	<p>대전고려만물 032-884-5055 인천불교서적 032-773-9036 제일불교서적 032-505-3861 중로만물사 032-516-8434 태극만물 032-883-1339 광안만물 032-583-0057 한양만물사 032-504-0373 한대만물 032-762-9381 한화만물 032-761-6880 광주지역 전의번호 광주영도불교 062-269-2534 김천학기 062-366-4948 대선만물사 062-225-1211 만연우기 062-226-7786 산우 062-226-3076 순향불교서적 062-226-6073 백동만물 062-224-6886 대전지역 전의번호 개원전만물사 042-271-2325 고려만물사 042-221-0885</p>	<p>대구승복사 042-254-8776 백제불교사 042-253-9907 보문불교 042-257-0161 보승종정불교사 042-282-3019 유암만물사 042-257-8782 유암만물사 042-252-2356 중앙만물 042-222-7840 천지불교사 042-623-3358 해초불교사 042-253-2325 황금불교사 042-285-5859 울산지역 전의번호 안양불교서적 052-284-2632 울산종정불교사 052-211-1770 강원지역 전의번호 관동만물사 033-642-8880 관동만물 033-532-3154 관동만물 033-631-7907 대정만물사 033-243-6070 동해불교 033-643-4058</p>	<p>미추홀교사 033-434-8446 보성만물 033-552-5323 북문불교사 033-521-3070 삼학선상불교 033-574-0506 성상만물 033-253-5119 소양만물 033-253-3745 여러불교사 033-632-9064 영월불교사 033-373-3374 해초만물 031-747-7523 황금만물 031-756-0737 관동고려만물 031-754-2256 경안불교사 031-761-6156 고려불교사 031-652-1878 광명정불교 02-2060-5865 구리만물 031-562-4640 구리만물 031-563-7554 대원만물 031-641-5641 대원불교 031-865-8520 동명불교 031-844-9652</p>	<p>동두천만물사 031-865-6294 동두천시도만물 031-863-1504 학식대우당 031-584-3598 영호불교사 031-883-2756 무안만물 031-722-3834 삼보불교 032-656-0395 성남만물 031-765-9655 성인만물 031-336-0337 정호만물 031-747-5641 장수만물 043-276-3347 제일불교서적 043-845-9896 제천불교사 043-645-7517 창동불교사 043-250-9090 충청지역 전의번호 충청고려만물 031-751-0811 하남선정만물 031-793-6139 영북지역 전의번호 무심천만물 043-274-0880 백호만물 043-843-6724 충남만물 041-557-3360 영남유기 043-851-5124 육거리만물 043-250-2525 진호만물 041-631-6441 장수만물 043-276-3347 제일불교서적 043-845-9896 제천불교사 043-645-7517 창동불교사 043-250-9090 충남지역 전의번호 김제만물 041-562-5952 공주만물 041-856-1135 관천만물 041-641-2073 금강불교사 041-551-1235 금산불교사 041-754-8892</p>	<p>대전고려만물 041-753-9996 대전불교서적 041-931-1491 백제불교사 041-855-5621 서산만물사 041-665-5136 연화불교 041-736-4163 일오불교서적 041-865-1539 충남불교사 041-557-3360 천우불교사 041-865-0549 충주불교서적 041-634-7727 민동만물사 041-631-6441 한동만물사 054-853-6269 영주불교서적 054-651-2248 해천불교사 054-654-1796 오복불교사 054-433-4051 지바사 054-455-9656 삼천불교사 063-625-0234 대원불교사 061-743-6755 삼리만물 061-333-8488 여수(화)불교사 061-643-7530 아리유기 063-855-3883</p>	<p>전주중앙만물 065-282-4070 현대불교사 063-255-2274 경북지역 전의번호 경주불교서적 054-772-6548 경주대중 054-749-1580 구미대중 054-455-1058 영주불교사 054-651-3077 서리만물 054-741-1785 신라유기 054-771-2657 민동만물사 054-854-1974 한동만물사 054-853-6269 영주불교서적 054-651-2248 해천불교사 054-654-1796 오복불교사 054-433-4051 지바사 054-455-9656 삼천불교사 063-625-0234 대원불교사 061-743-6755 삼리만물 061-333-8488 여수(화)불교사 061-643-7530 아리유기 063-855-3883</p>	<p>대전고려만물 052-244-4224 다흥불교사 055-835-4056 미산불교사 056-242-2485 미산불교사 055-255-6678 미산(화)대중 055-245-1245 일원(화)대중 055-356-4441 영남(화)대중 055-355-5742 일원(화)대중 055-352-8881 보광(화)대중 055-835-1516 무당(화)대중 055-352-3755 북대(화)대중 055-741-8423 연화(화)대중 055-943-2731 우정(화)대중 052-243-7721 제일(화)대중 055-741-5832 청년(화)대중 055-533-9033 하동(화)대중 055-295-8911 해동(화)대중 055-221-1290 해성(화)대중 055-288-7998 홍익(화)대중 055-533-7873</p>
---	--	--	--	---	---	--	---	--	--